

# 상하이의 공간적 실천에 관한 소고

- '광장'을 중심으로 -

고운실\*

## <目 次>

1. 들어가며
2. 상하이의 공간과 공간 실천
3. 전유된 광장 - 정치국가의 상징에서 자본의 스펙터클로
  - 1) 공간의 사유화
  - 2) 자본의 '광장' 전유하기
4. 일상생활의 전술로써 광장 재전유하기
  - 1) 광장무: 무해함과 건전함으로 광장을 점령하기
  - 2) '광장화'하기: '上海花祭事件'을 중심으로
5. 나가며

## 1. 들어가며

도시공간과 도시의 관리와 통제의 기술로도 포획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들의 일상생활과 그 실천이 새로이 형성해나가는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현재 우리의 통념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인식과 장소이해의 한계를 넘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 필자는 여러 해를 상하이에서 보내면서 이방인으로서 거주민으로서 또 도시를 거니는 '산책자'<sup>1)</sup>로서 관찰하고 체험했던 다양한

\*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문화연구전공 박사과정.

1) 도시의 거리를 일상적으로 느릿느릿 거니는 행위는 일찍이 보들레르의 글에서도 보여지듯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새로운 소비 공간은 근대적 삶의 속도에 무관심한 거리의 산책자, 즉 "만보객(flâneur)"의 집이 되었다. 만보객은 "관찰자 또는 추적자, 곧 항상 관찰하고 기록하며 분류하는 의식 많은 사람"이며, "도시의 감각에 몰입되

감상과 느낌을 체계적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한다. 상하이의 도시 이미지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상생활의 경험들을 통해 도시의 공간과 경관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무엇을 은닉하고 있는가. 또한 일상생활의 규칙 안에 부단히 전유(appropriation)하고 있는 실천으로서의 발화행위<sup>2)</sup>는 어떤 새로운 내용과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상하이 공간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데올로기적인 경관이자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업공간인 '광장'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이란 이렇듯, 관습적 관리 체계 안에서도 제도적, 경제적 차원이 아닌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주체들의 전유, 재전유, 혹은 왜곡, 변형, 가공 등을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행태들과 관계들을 담고 있는 테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간은 단순한 테두리가 아니라 주체들의 경험과 공간이 맞부딪히며 형성되는 창조적 체험의 장이자 '사회적 형태', 즉 '삶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렇게 익숙하고 일상적인 공간일수록 기호화된 이데올로기와 감추어진 사회적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무의식적으로 지각된다. 르페브르도 이미 공간 읽기에 대한 곤혹을 토로한 바 있듯이,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드는 공간일수록 그 공간에 내재된 사회적 관계에 관한 가독성을 촉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드러

---

고자 하고 군중 속에서 헤엄치고자 하며 느낌에 전적으로 매료되기도 하며 무작위적인 욕망과 절시증(scopophilia)의 즐거운 매혹에 굴복"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필자는 상하이에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여행자로서, 거주민으로서 거리를 거닐고, 군중과 뒤섞이고, 주변 환경이 주는 감각과 느낌에 매료되었으며 "몰입과 이탈 사이의 흔들리는 존재"로서 상하이를 경험했다.

질 벨런타인, 박경환 옮김,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한울 아카데미, 2014년. '만보객' 280-282쪽.

- 2) 소쉬르의 랑그와 파롤의 의미를 통해 본다면, 도시 공간은 랑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공간 안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나타나는 일상생활의 실천은 파롤이라고 할 수 있다.
- 3)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을 '사회적 공간'이라고 말한다. 맑스의 '생산'이라는 용어를 빌려오으로써 그 생산이라는 맥락을 '공간'에 접목 시켰다. 생산은 일종의 관계와 권력구도를 포함한다. 그가 말하는 사회적 공간은 그것이 품고 있는 대상들이나 대상들의 총합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이 '대상들'을 단순한 사물만이 아니라 관계까지도 포함한다. 생활, 인식, 개념, 정치 전략들이 가지는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르페브르가 말하는 삶의 테두리로서의 '공간' 연구이다. 양리 르페브르, 양열란 옮김, 『공간의 생산』, 예코리브르, 2011년. 160-163쪽 참고.

나지 않고, 읽어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과 그 공간들에 관해 고찰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 2. 상하이의 공간과 공간 실천

공간이란 무엇인가. 공간은 서로 다른 역사적 시간들이 중첩되고 덧씌워지며 형성된 것이다. 공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는 르페브르가 말한 바대로,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재현된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 있다. 여기서 공간의 재현이란 도시 계획가, 건축가, 정치가, 행정가, 조경가와 같은 전문가들의 공간에 대한 이론 및 담론들이다. 재현된 공간은 실제 체험되는 물리적 공간이다. 그러므로 특정 공간의 지배적 장소성은 동시대의 이데올로기와 패러다임의 특징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도시에 관한 두 가지 개념 중 ‘개념도시(city of concept)’<sup>4)</sup> 즉, 하나의 총체적 이미지로서의 도시라는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 상하이 푸둥지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장소성과 파노라마적 경관은 동시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담론의 선택 및 실천의 결과이자 수많은 정책 담론의 경합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와이탄의 화려한 야경, 마천루, 고가도로, 황푸강(黃浦江), 화이하이루(淮海路), 신텐디(新天地), 룡당(弄堂), 카페, 바, 백화점과 쇼핑광장 등은 상하이를 표현하는 정체성의 기표이며, 알림 게시판, 관공소 공고문, 표어, 초록색 등근 우체통, 각종 도로 표지판과 지하철 표시, 가로등, 소화전, 하수도 등은 일상 안에 공공 서비스 공급과 같은 제도화된 매트릭스의 예를 보여준다. 이는 도시라는 공간을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최적화하여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공공 정책과 전략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간의 실천’은 공간에 의해 사람들의 행태와 삶의 양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은 “생산과 재생산, 특화된 장소, 상대적인 응집력을 유지시켜주는 데

4)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참고.

필요한 사회적 훈련 각각이 필요로 하는 고유한 공간의 총체를 모두 아우른다. 사회적 공간과 주어진 사회의 구성원 각자가 공간과 맺는 관계에 있어 확실한 능력과 이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수행을 전제로 한다.<sup>5)</sup> 르페브르의 '공간의 실천'은 셰르토의 '보행도시(city as pedestrian)', 즉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의 실천적 행위를 담아내는 공간으로서의 도시 개념과 흡사하다. 매일의 일과들이 익숙한 공간 형식을 통해 체험되며, 이렇게 구성된 일상생활은 무의식과 공유된 지식으로 합치되며 살아있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상하이의 지하철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며 방송되는 짧은 뉴스와 다양한 정보, 거리의 자동차 소음, 공원의 새소리, 각종 미디어의 광고음, 알림음, 기타 생활소음과 같은 특정 소리 풍경들은 사람들의 일상적 공간에 경험으로 부착된다. 일상의 시간과 공간은 한데 어우러져 육화된 리듬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축적되어 습관, 관습, 상식, 전통,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것이야말로 점, 선, 면으로 구성된 지도상에는 재현되지 않는 일상의 규칙 안에 내밀한 창조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적 실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상하이라는 도시 공간을 하나의 텍스트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시 공간을 "의미 체계인 동시에 사회적 재생산의 체계"로 인지함과 동시에 "도시 공간에서의 소통과 의미 생산에 사용되는 구체적 방식을 이해하고자 함"이다.<sup>6)</sup> 왜냐하면 도시 공간과 스펙터클은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유지하기 위해 도시 거주자의 참여와 실천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사람들의 다양한 감각과 욕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통과 의미체계는 장소의 변화를 생성하는 중력으로 작용한다. 본고에서는 '광장'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자본에 의해 재현된 공간과 시민들의 공간적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발화행위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의미체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상하이에 백화점이 들어선 이래로<sup>7)</sup> 백화점을 지칭하는 말은 다양하게 변화하

5) 앙리 르페브르, 양열란 옮김, 『공간의 생산』, 서울:에코리브르, 2011년, 80쪽.

6) 돈 미첼, 『문화정치 문화전쟁-비판적 문화지리학』 류제현 외 옮김, 살림출판사, 2011년, 241쪽.

김성도, 『도시 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안그래픽스, 2014, 161~167쪽.

7) 상하이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843년 개항 후 조계 지역을 중심으

였다. 1936년까지 상하이의 백화점은 상호명 뒤에 公司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1937년 태평양 전쟁의 영향으로 점령군이었던 일본의 영향으로 '百貨'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이후 '百貨'라는 말을 많이 보편적으로 쓰였다.<sup>8)</sup>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백화점을 지칭하는 말이 '百貨'뿐 아니라 '購物中心' '商厦' '城' '廣場' 등으로 다양해진다. 특히 '廣場'이라는 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겨난 백화점과 쇼핑몰이란 뜻으로 붙여진 말인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점한 쇼핑몰의 대부분이 광장이라 불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졌다.<sup>9)</sup>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외부로 난 창문이 거의 없으며 온갖 화려한 사치품과 브랜드 상품으로 채워져 있고 고층 건물을 자랑하는 거대한 성(城)과 같은 형태를 띤다. 특히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상하이 곳곳에서 상업구(商業區)가 생겨났는데, 이는 야외 중앙의 원형 혹은 사각의 넓은 공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밀집된 여러 쇼핑몰 건물과 함께 구성된 형태를 띤다. 이 야외 쇼핑몰을 '원림식(園林式) 쇼핑몰광장'이라 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공원에 조성된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과 같이 주변에 숲처럼 밀집한 쇼핑몰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원하는 곳에 들어가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광장의 형태를 말한다. 이 원림식 쇼핑몰광장은 주로 가운데 분수와 예술 조형물들이 설치된 다목적 공간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주변에 보이는 상점들의 쇼윈도를 한눈에 둘러볼 수 있으며 돌아다닐 수도 있고, 때로는 이곳에서 계절에 따라 프로모션 이벤트나 전시회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과 볼거리가 전시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플라자나 광장이라고 불리는 성모양의 실내 쇼핑몰은 가운데 공간이 뚫려있는 높은

로 영국 상인이 설립한 홀&홀츠 백화점(福利公司, Hall & Haltz)이다. 이후 1907년에 이르기 까지 외국 자본에 의해 여러 백화점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화교 자본에 의해 시엔스(先施公司), 용안(永安公司), 신신(新新公司), 따신(大新公司) 백화점이 생겨난 것은 1917년 이후의 일이다. 홍준형, 「백화점의 탄생과 근대 상하이의 소비문화-192,30년대 상하이의 화교 자본 백화점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51집, 2010년, 341~342쪽. 참고.

8) '永安百貨有限公司'처럼 지금도 '백화'를 주체로 한 상점명을 쓰는 곳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1937년 태평양전쟁 때 점령군이었던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상하이와 홍콩을 점령하여 적산을 접수,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가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인호, 『백화점의 문화사-근대의 탄생과 육망의 시공간』, 살림총서, 2008년, 43~44쪽.

9) 상하이 지역의 백화점과 쇼핑몰의 개점연도를 나타낸 <표1> 참고. 부록.

천장이 있는 원형의 공간으로, 어느 층에서 둘러보아도 위아래, 좌우의 모든 상점의 위치와 이름이 탁 트인 시야로 한 눈에 들어온다. 이곳 역시 야외의 원림식 쇼핑광장과 마찬가지로 숲을 거니는 것처럼 온갖 상품들의 숲을 거닐 수 있다. 쇼핑광장은 말 그대로 상점과 상품이 있는 모든 방향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상하이의 백화점과 쇼핑몰을 중심으로 자본이 공공 공간을 사유화하는 방식을 ‘공원화’의 비유, 즉 자연물의 코드화와 경관의 사유화를 통해 설명한다. 그리고 아이러니 하게도 이렇게 사유화된 공간을 공적 공간을 일컫는 ‘광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당대 상하이라는 도시 공간을 기획하는 공공정책과 전략의 결과이다. 그리고 상하이 시민들은 일상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정책과 자본에 의해 전유된 ‘광장’을 다시 시민의 광장으로 재전유한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상의 리듬으로 구성된 ‘공간적 실천’이 만들어내는 재전유를 본문에서는 ‘공원화와 대비되는 개념인 ‘광장화’라고 설명하겠다.

### 3. 전유된 ‘광장’: 정치 국가의 상징에서 자본의 스펙타클로

#### 1) 공간의 사유화

상하이는 1843년 난징조약을 통해 개항한 이후 많은 변화와 부침을 겪었다. 일찍이 광저우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이후 여러 열강의 점령으로 면화 무역을 기반으로 한 방직산업이 발달했다. 이 시기는 서구 열강의 1848년에서 1875년에 이르는 시기 초기 자본주의의 발달을 겪는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상하이 역시 산업의 본격적인 팽창과 함께 서구 부르주아 문화가 들어오게 되었다.<sup>10)</sup> 상하이는 반식민지 상태라는 민족모순과 부르주아 문화와 그 주변부 문화

10) 1848년~1875년은 에릭 홉스봄이 장기 19세기의 시리즈 중 두 번째 책 『자본의 시대』를 서술하는 시간의 중심축이다. 홉스봄은 이 기간을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팽창과 함께 부르주아가 승리하는 시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부르주아의 정치적 지배가 아니라 빈부 격

로 나뉘며 계급모순을 동시에 갖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었다. 카페, 바, 무도장, 극장, 백화점, 공원 등 부르주아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공간들이 생겨났고, 그 가운데서도 백화점과 공원은 서구의 산업 경제와 부르주아 여가문화를 드러내는 상하이의 중요한 공간이며 매우 유사한 공간이기도 하다. 두 공간은 근대 부르주아 문화의 우월감에 입각한 소비문화와 여가 공간을 대표한다. 백화점은 부르주아들의 온갖 사치품과 진귀한 상품의 경관을 만들어 내었다. 개항이후 상하이에 생겨난 공원은 부르주아(외국인)들이 향유하는 여가, 휴식공간으로 두 조계지가 접치는 경계의 땅을 매입하여 조성한 곳으로, 외국인에게만 개방되었다.<sup>11)</sup> 백화점과 공원은 야만과 비문명에 대한 타자화된 공간이었다. 문명과 비문명, 외국과 중국이라는 사회적 권력관계로부터 배태된 문화적 차별의 기제가 작동하는 곳이었다. 당시 상하이의 맥락에서, 백화점과 공원은 코드화된 자본(상품)과 자연(나무, 돌, 풀, 물, 정자, 오솔길, 다리 등) 속을 거닐며 이를 소비하고 향유한다는 점에서, 또 특정 계급에 속한 여가/오락 문화라는 점에서 매우 동질적인 공간이다.

당대 상하이의 도시 공간 재편은 1980년대 부동산 개발 붐을 통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그 중 가장 크게 확장된 공간, 중심이 되는 공간은 바로 주거공간이다.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쇼핑센터가 생겨났고, 도로를 따라 그 밖의 교육, 교통, 의료 시설 등이 배치되었다. 생활의 편리함과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백화점과 공원은 상하이의 독특한 '거주-소비'형태의 주요 공간이 되었다. 공원은 번잡한 도시의 환경 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일종의 코드화된 전원이다. 새로 지어진 고급

차의 심화됨과 동시에 다수의 주변부가 분화되었고, 이러한 경향 자체가 자유주의적 발전이었다는 측면에서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에릭 홉스봄, 『자본의 시대』, 정도영 옮김 김동택 해제, 한길사, 2008년, 참고.

- 11) 상하이 개항이후, 런민공원은 광서 26년(1894년)에 이르러 조계지 경마장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26만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땅을 公共租界工部局과 上海娛樂場基金會가 뜻을 모아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데서 출발했다. 이곳은 당시 「上海公共娛樂場規則」에 의거해 경마가 있는 날을 제외하고 외국인에게만 개방되었다. 민국 3년(1914년)에 이르러 虹口娛樂場(현 魯迅公園), 極司非而公園(현 中山公園), 顧家宅公園(현 夏興公園)이 차례로 개장하였다. 1950년, 경마장 자리에 런민광장과 만들고 런민공원의 녹지를 더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2년에 걸쳐 준공 작업을 하여 1952년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上海園林志」, 『上海地方志辦公室』 참고. www.shtong.gov.cn (검색일 2015년 1월26일).

아파트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별장촌은 그 안에 시내와 개울, 대나무 숲, 아담한 정자와 다리, 오솔길 등의 전원적 산책공간을 조성되어 있다. 공원화된 자연은 생활의 편리함과 고급스런 취향을 소비할 수 있는 백화점과 더불어 성공과 행복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행복'의 가치와 등호 지어진다. '공원화된 자연은 거주공간과 부대시설의 조감도와 함께 부동산 광고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왕샤오밍은 일찍이 이를 두고 당대 이데올로기가 스펙터클을 통해 작동하는 방식으로서의 '이미지 인지훈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sup>12)</sup> "자본은 고도로 축적된 자신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도시의 스펙터클을 만들며(§34)"<sup>13)</sup>, 이렇게 재현된 공간은 당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이는 생활의 경험과 개인의 인지적 공간 안에 고착화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자본이 공간을 재현하는 방식이자 새롭게 전유하는 전략이다.

자본이 공간을 자기 식으로 전유하는 이 같은 방식은 바로 '공원화'의 방식이다. '공원화'의 전략은 달리 말하면, 공간을 사유화하는 방식이다. 코드화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써 시각적 환상과 그에 따른 어떤 믿음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눈앞의 스펙터클에 사로잡히며 이것들이 제공하는 가상적 가치에 매료된다.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와 품위, 그리고 개인적 취향을 이런 가상에서 추출하며, 추상적 가치와 연결짓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앞에 스펙터클을 두고 보고자 하며 이에 관한 욕망을 장전한다. 사람들의 절시증(scopophilia)과 같은 시선은 "사회의 모든 결과물들이 존재에서 소유로, 또 소유에서 가상으로 이동(§17)"한 결과이다. 또한 이 "시각적 이미지는 노동과 생산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분리시키며(§25,27)", "실질적 소외를 만들어낸다(§32)". 푸른 잔디밭에 호수가 있고 둥그런 아치형의 다리가 버드나무와 어우러지는 곳, 나무와 돌과 꽃, 풀 한 포기마저 노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사람들은 이런 공원을 거닐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전원'을 느낀다. 쇼핑센터 안의 진열된 상품의 숲을 거닐 때, 상품마다 노동의 땀방울이

12) 왕샤오밍, 「상하이의 새로운 '삼위일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김명희 외 번역, 문화과학사, 2014년.

13) 기 드보르,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울력, 2014. 이후 (§숫자)는 기 드보르의 이 책의 테제 번호를 표기한 것임.

스며있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상품의 화려함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은 노동과 생산의 결과를 분리시켰다. 우리는 ‘광장’이라고 불리는 상하이의 쇼핑물 안의 상품을 바라볼 때, 이곳의 화려한 장식과 매끄러운 대리석, 빛나는 크리스털과 현란하게 꾸며진 쇼윈도와 조명에 매혹되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노동은 그 상품과 분리되어 잊혀지게 되고 모든 감각들의 단순한 소외, 즉 소유라는 감각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된다. 이런 감각들은 물건을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으로 환원되며 이는 곧 인간관계 안에서의 사회화와 관련된 다. 존 고스(John Goss)가 쇼핑물의 기호학에 관한 연구 가운데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사회는 물질 세계와 상징적 세계를 중재하는 계급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계급이 점차 양쪽 세계를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사회적 지위 뿐 아니라 자아개념(self-concept)마저 상품에 의해 정의된다고 납득”하게 되었다.<sup>14)</sup>

또한, 코드화된 자본/자연 속을 쇼핑/산책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이 두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의 공간(open space)이지만 ‘공공(public)’의 의미는 사라진 공간이며, 공공정치로서의 공간은 더욱 더 아니다. 오히려 매우 사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자본의 전유 전략에 의해 구성된 공간은 노동과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은닉한다.

## 2) 자본의 ‘광장’ 전유하기

자본의 전유 전략 가운데 눈여겨 볼 것은 언어에 대한 전유이다. 당대 상하이에서 혹은 중국 전역에서 출현한 ‘광장’은 집회와 공공정치의 공간이 아닌 소비의 장소이다. 쇼핑물은 “~백화점(百貨)”, “~성(城)”에서 “~센터(中心)”로, 또 “~상업 빌딩(商厦)”에서 마침내 “광장(廣場)”으로 불리게 되었다.<sup>15)</sup> 상하이 주민들의 도

14) 재인용. 돈 미첼, 류제현 외 옮김, 『문화정치 문화전쟁-비판적 문화지리학』 살림출판사, 2011년. 307~308쪽.

15) 쉰지아후이(徐家匯), 쓰촨베이루(四川北路) 주변은 특히 많은 백화점과 쇼핑광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특히 화이하이루(淮海路)는 홍콩플라자(香港廣場), 리마오광장(力寶廣場), Infinity Plaza(無限度廣場), 상하이광장(上海廣場), Shanghai Times Square(大上海

시 내에서의 사고, 쇼핑, 여가 등의 일상생활은 이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만큼 '광장'은 자연스러운 일상의 공간이자 거주 공간의 일부가 되었다.

당대 중국에서 광장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하나는 국가의 상징적 공간으로서의(공식적이고 기념비적 공간으로서의) 베이징 톈안먼 광장과 자본의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상하이 런민광장이다. 톈안먼 광장은 신해혁명 이후 권위와 폐쇄성의 통치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공간이었다. 건국 이후 공식적이고 기념비적 공간으로 재정비 되었지만, 개혁 개방 시기이후로도 1989년 6월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저항적 사회 운동과 공공 시위의 주된 장소였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완전한 시장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톈안먼 광장은 마오쩌둥 초상화와 인민대회당, 혁명박물관, 그리고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을 보러 오는 여행객을 맞이하는 온전한 공식적 기념의 공간이자 사적인 공간이 되었다. 때에 따른 삼엄한 경비와 통제는 국가 권력이 더 이상 광장이 공적(공공정치)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을 원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하이의 런민광장 일대는 조계지 시절에는 경마장으로, 항일전쟁 시기에는 일본인의 병영과 미군 기지와 클럽이 있었던 곳이었다. 해방 이후 1950년 상하이시 정부가 2년에 걸친 확대/건설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런민공원의 녹지는 확대되었으며 런민광장, 런민대도, 도서관, 체육관 등이 생겨났다. 당시 런민광장은 14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상하이 시민의 시위 집회의 장소로 1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도시개발의 필요에 따라 이곳에 대해 종합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런민광장은 주변과 그 일대의 문화, 여가, 여행, 상업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 행정, 교통, 문화 상업이 일체화된 광의의 원림식 광장으로써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광장은 원래 집단적 정치활동이 일어나는 공공장소였으며 중국 사회주의 시기 공공담론과 집회의 중심지였던 만큼, 중국의 어느 도시를 가든 이름난 광장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최근

時代廣場) 등 '광장'이라고 명명된 쇼핑센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글로벌 브랜드가 밀집되어 있으며 젊은 부유층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일상화된 소비의 장소로서의 상하이를 연구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 함.

이웅철, 「기억, 망각, 정체성과 장소성: 중국 상하이(上海)의 화이하이루(淮海路)의 문화적 의미」, 『아태연구』 제19권 제2호, 2012. 49쪽.

중국 사회에서 새로 나타난 ‘광장’이라는 곳은 수많은 상품과 ‘고도로 축적된 자본이 이미지화되어 나타난 스펙타클(\$34)’로 채워진 쇼핑몰이 되었다.

자본은 ‘광장’ 안을 수많은 기호들로 가득 채워 놓았고, 사람들은 이 광장을 배회하면서 화려한 내부 장식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원림식 야외 광장은 어떤가. 예를 들어, 다닝국제광장(大寧國際廣場)의 한 가운데 스크린에 이 쇼핑광장의 이미지를 무한 반복해서 보여준다. 가족과 보내는 여가의 장소, 친구들과 만나는 사교의 장소, 연인과의 데이트를 즐기는 연애의 장소, 계절과 절기마다 할인은 일상의 더 없는 행운이자 선물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일상이자 행복이요, 도시의 삶의 방식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한다. 광장은 도시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무대로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여러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소비라는 하나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광장이라는 말은 더 이상 집회와 공공정치의 공간이 아닌 상업지구 혹은 쇼핑몰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광장 내부의 편리한 동선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상품의 사용가치를 교묘히 덮어버리는 광고의 마술”은 “상품의 기호가치가 그 자체의 사용가치로 보이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대를 만들어내고 또 소비를 통해 그 기대를 만족시키도록 한다.<sup>16)</sup>

이런 경관은 정치적 투쟁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공존하고 사회적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광장에 놀러온 사람들은 고급 브랜드 상점 안에 들어서서는 순간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되는 것이며, 로비와 출입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경비원들은 이들의 구매 행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거지나 잡상인등과 같이 차림새가 남루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왜냐하면 불량한 차림새나 구걸 등의 행위 같이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쇼핑객의 잠재적 구매 행위에 대한 방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오로지 상품을 향해, 그리고 구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광장에서의 쾌적한 여가 시간과 사교 활동을

16) 돈 미첼, 『문화정치 문화전쟁-비판적 문화지리학』, 류제현 외 옮김, 살림출판사, 2011년, 301~317P.

위해 경비원과 경찰들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를 원하며 또 이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본래 광장이 가진 저항적 장소성은 고도로 통제된 환경과 충만한 기호학적 조건을 통해 자본의 광장으로 탈바꿈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투쟁을 막고 기존 사회가 가진 사회관계를 온전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이 '광장'이라는 언어를 전유하는 방식이다.

#### 4. 일상생활의 전술로써 광장 재전유하기

##### 1) 광장무: 무해함과 건전함으로 광장을 점령하기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자본의 전유 방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순응하고 안주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아무리 공간과 도시의 구조가 효율과 관리를 위해 기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와 일상생활의 내용들은 판옵틱 관리체계에서 끝까지 포획되지 않는 틈새이자 구멍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외부에 위치하고자 하며, 그것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세르토가 말하는 도시에서의 “걷기”이다. “걷기는 도시에서의 공식적 이야기를 경험하고 변화시킴으로써 공식적 이야기를 훼손하고 그것에 대해 전복적인 이야기를 창조(de Certeau 1984:105~107)”하는 일상생활의 전술이다. 세르토에 따르면, 전술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환경 안에서 작동하는, 세부적이고 고립된 행위들로 작동되는 약자의 기술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자본이 광장을 전유하는 방식이 현대적 도시화와 시장화를 추구하는 당대 중국의 정치와 경제의 전형적 **전략**의 태도라면, 이에 대응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전술**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일상생활의 실천 전술로써 나타난 새로운 방식으로 광장무(廣場舞)가 있다. 광

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자발적으로 모여 친목과 건강을 도모하는 공연적 특성을 가진 군무”이다.<sup>17)</sup> 이런 군무를 즐기는 중국인의 특성은 민족의 오랜 전통과 특수한 시기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형성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40년대는 연극, 노래, 춤이 한데 어우러진 일종의 광장극(廣場劇)인 양가무(秧歌舞)가 널리 유행하였고, 문혁시기 큰 스피커에 혁명가요를 틀어놓고 일사분란한 군무를 추거나 행진을 하는 집체주의적, 정치적 색채가 강한 충자무(忠字舞)가 유행했다. 1980년대 개혁개방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춤에 대한 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교제무(交誼舞)가 널리 유행하기도 했다.<sup>18)</sup> 이후 대도시의 광장, 공원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넓은 장소’에서 지금의 형태인 ‘광장무’가 나타난 것은 19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이 시기는 광장에 대한 자본의 전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 즉 이른바 문화광장이라고 하는 야외의 원림식 쇼펡광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거대한 규모로 빈번히 곳곳에서 나타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주로 중장년층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전통의 민족무와 현대무용 등이 에어로빅 등 보건의조와 접목되면서 다양한 동작과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과 행인들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광장무에 쓰이는 음악으로는 혁명가요, 민요, 유행가 등 다양하다. 이렇듯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광장무가 연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내륙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자, 2011년 중국 당국은 전 인민의 생활 건강 체육을 보급하고 진흥시키기 위해 「全民健身計劃綱要」 「全民健身條例」 등의 관련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광장무는 곳곳의 대도시의 공원과 야외 광장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광장무는 이전 시기의 정치적 특색을 갖기 보다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저녁이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17) 바이두 백과 “광장무” 검색, 2015.3.2.

18) 광장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周麗雲 邱慧晶, 「我國廣場舞的發展歷史淺析」, 『福建體育科技』第34卷第1期, 2015年; 孔佳, 「影向廣場舞推廣的因素分析」, 『社會體育學』第5卷第2期, 2015年; 甘曉君 唐新建, 「廣場舞傳播類型與組織特征探討」, 『社會體育學』第5卷第6期, 2015年.

서 음악 듣기란 이어폰을 통해 소형화되고 개별화된 행위이지만, 광장무를 시작할 때 커다란 스피커로 틀어주는 음악은 함께 듣는 공적 행위가 된다. 레이 초우가 말한 워크맨의 기능은 “거리의 순응주의적 소음으로부터 자유를 가능케 한다”<sup>19)</sup>고 했지만 이와 반대로, 광장무의 음악은 원자화된 개인, 역사의 외부에 물러난 개인, 그리고 같은 공간에 속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을 집단의 일원으로 소환한다. 경쾌하고 흥겨운 통속적인 노래와 리듬에 맞춰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이들의 군무에 주변 행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 이 집단에 합류해 동작을 따라 하기도 한다. 이 구경꾼들을 바라보며 단체로 춤을 추는 행위에서 오는 전시성은 집단적 힘을 창출한다. 그래서 군무를 추는 사람들은 구경꾼과 행인이 더 많은 곳일수록 흥이 나고 즐겁다고 말한다. 이미 사적 공간이 되어버린 상업광장을 춤의 유희로 점령함으로써 광장은 잠시 동안 카니발의 광장으로, 공적 공간으로 다시 전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무의 전복적 특징은 혼잡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을 전제로 한다.

중국에서 공동의 목적으로 집단 시위를 벌인다는 거 저항적 활동을 벌이는 장면은 흔히 목격될 수 없는 장면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권력은 광장이 공적 정치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며 여타의 공간들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통제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광장에는 관리원과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공간이 ‘구별짓기’의 공간으로, 사적 공간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 그러나 광장무는 이 공간을 자유롭게 점령하고 점유하며 광장 주변을 순찰하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킨다. 광장무의 전술은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킴, 무료한 일상 가운데 제공되는 볼거리와 소란스러움 그리고 중노년층의 부녀자들로 구성된 건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무해함’이다. 이들은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이념을 추구하는 공동의 집단에 소속된 회원이 아니다. 중년 이상의 퇴직한 여성들(주부)이 주를 이루며 대개 이웃한 주민이거나 서로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분명 사회에서 ‘뭍 없는 자’<sup>20)</sup>들이지만 그들의 뭍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일도

19) Ray Chow, 「Listening Otherwise, Music Miniaturized: A Different Type of Question About Revolution」, 『The Cultural Studies Reader』 Simon During(ed.), New York: Routledge, second edition. 1999. p.475.

거의 없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거리의 한 복판을 점령하는 불경, 이에 더해진 천진난만함, 무해함, 즐거움, 흥겨움은 국가 상징을 수호하는 군인, 경찰마저 그 무리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전염성이 있다.<sup>21)</sup> 이들이 만들어낸 광장은 자본의 광장처럼 어떤 공통성을 일제히 받아들이는 공간도 아니요, 또 권력의 공포가 지배하는 곳도 아니다. 이들의 광장은 공포(공권력의 존재, 통일성, 진지함)와 유희(웃음, 즐거움, 흥겨움, 다양성)가 서로 공존하는 곳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적 전술로서의 '건기'의 효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세르토가 인정한 바 있듯이, 이 광장무를 통해 어떤 사회적 반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광장무의 저항성은 통제와 관리의 권력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지배권을 빼앗는(무력하게 만드는) 그 사용가치에 있다. 광장무는 무의미와 의미를 동시에 드러낸다. 광장무는 일상의 영역에서 유희성과 무해함의 발랄함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진정한 '광장'을 소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전술의 역량은 역사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도록 기획하는 공권력의 관리, 감시와 통제의 조건에서도 삶의 조건과 예술적 자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삶능력<sup>22)</sup>에 있다.

20) 랑시에르가 말하는 인민은 '아무것도 아닌자들(les gens de rien)' '뭘 없는 자' 즉 통치할 특수한 자격을 갖지 않은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소수자'나 사회에서 '배제된 자들'로 보는 것이기보다는 통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출발한다. 즉 '구조적인 의미로서의 개인들, 집단들로 이해한다.

자끄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옴진이의 덧말』,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08년 참고.

21) 2014년 대중가요 '샤오핑귀(小草萼)'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선율과 가사로 대중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B급 문화의 전형적 특징을 앞세워 큰 반향을 일으킨 '샤오핑귀MTV' 역시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는 광장무의 단골 음악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본 따 젊은 사람들이 광장이나 빈 공터에 모여 함께 군무를 추는 장면을 유쿠(www.youku.com)에 올리면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물론 이와 같은 플래시 몹은 지구촌 곳곳에 등장하여 장관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소방관, 군인, 경찰 등 사회유지와 치안담당의 역할을 하는 공권력이 일시적 무장해제 하며 함께 대중문화에 참여하며 즐겼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22) 삶능력(BIOPOWER)이란 삶을 창조하는 능력으로서 집단적 주체성, 사회성 그리고 사회 그 자체의 생산을 말한다.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창출하는 삶의 정치를 만들어낸다. 즉, 삶능력은 결핍된 무엇을 채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충만함을 극대화하려는 적극적 행동이다.

## 2) '광장화'하기 : 上海花祭事件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실천으로서의 전술과 이에 따른 전용은 어디서든지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스펙타클-국가에서 일어나는 구성원들의 전술로서의 특이점은 바로 와해된 정체성 혹은 너무도 다양해서 하나의 귀속으로 재현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결집되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이는 곳은 광장이 된다. 미국 월가 점령시위의 시발점이 된 주코티 공원 역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유목적 주체가 모여 광장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미선이 효순이 사건과 한미 FTA 체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으고자 촛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로 곳곳에서 광장이 만들어졌다. 홍콩의 우산혁명 역시 자발적 공동체들이 모여 거리를 점령함으로써 광장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조직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에 따라 스스로 대응 방식을 마련하는 즉흥성이 있다. 그들은 학생, 주부, 네티즌, 시민, 국민으로 불리는 다양한 정체성과 상이한 욕망이 중첩되어 있는 주체들이다. 이들이 만들어 내는 공간은 폭력과 비폭력, 공포와 평화가 공존하는 이질적이고도 모순된 공간이다.<sup>23)</sup> 아감벤은 앞으로 도래할 정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래할 정치는 더 이상 새로운 혹은 옛 사회 주체들에 의한 국가의 정복이나 통제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비-국가(인류)사이의 투쟁이며, 임의의 독특성들과 국가 조직 사이의 돌이킬 수 없는 탈구/분리이다.”<sup>24)</sup> 이렇듯 상이한 정체성의 자유

질 들뢰즈 외, 조정환 외 옮김, 『비물질노동과 다중』, 갈무리, 2005년, 135쪽 참고.

23) 바흐첸에게 있어서 공공공간은 공포가 독점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포와 죽음이 서로 갈등을 벌이는 전장이다. 바흐첸에게 민주주의란, 카니발의 이질적 공공영역처럼 “사회적 갈등들이 일어나는 전장”이며 헤게모니 영역이기도 하다.

이득재, 『바흐첸 읽기』, 문화과학사, 2003년, 76~77쪽.

24)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외 옮김, 『스펙터클의 사회에 관한 논평』에 붙이는 난외주석, 『목적없는 수단-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난장, 2009년, 82~101쪽 참고.

자끄 랑시에르 역시 “군중의 진정한 형상은 다자의 무질서한 소란이 아니라 배제하는 일자(一者)의 정념을 둘러싼 증오의 결집”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오클로스에서 주체를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사람들, “데모스의 고유한 역량은 집단적 합체의 일자가 아니라 아무나와 아무나 사이의 평등의 일자가 통과하는 길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끄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도서출판 길, 2008년, 93~95쪽.

로운 주체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관습적 권력과 대치하는 일상생활의 실천이 바로 '광장화'이다. 이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광장'이 된다.

이러한 광장은 상하이에서 다시 형성되었다. 2010년 11월 15일 자오저우루(膠州路) 일대 고층 아파트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소식은 SNS를 통해 동영상과 사진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으며, 상하이 시민들은 블로그를 비롯한 각종 개인 메신저에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자발적으로 퇴근 시간을 늦추어 소방차와 구조대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했다. 화재 7일째 되는 날, 11월 21일, 상하이 시민 수십 만 명이 현장에 모여 질서 정연하게 기도, 헌화, 침묵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현장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양초와 국화를 마련해 조문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애도의 물결이 주변 거리의 3.4 킬로미터 일대를 가득 메웠다. 그리고 이 조문객들은 화재가 난 아파트의 시공과정에서의 부패와 소방시설 미비 및 관리 미흡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이른바 花祭事件). 상하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모여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희생자들이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였으며, 이런 공동체적 정서는 모인 시민을 시위대로 전환시켰으며 부적절한 관리 시설과 부정부패에 관한 부당함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공통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게 했다. 광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광장에서는 치안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이른바 주체의 자리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며 하나의 공통적 정서와 감각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감각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자오저우루 일대에서 상하이 시민들의 광장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인터넷 공간과 SNS 공간에서 먼저 광장이 형성되었었다. 화재 사건 바로 다음 날 상하이 관방은 상하이 여러 주류 미디어와 회의를 열어 '관제(管制)'를 적용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적절한 수위의 비판은 허용하되 과도한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를 자제할 것과 화재 원인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말 것에 관한 내용이었다.<sup>25)</sup> 화재 사건 당일 부터 당보(黨報)와 각종 기관보(機關報) 등 관방 미디어에서 화재 진압과정과 원

25) 張昱辰, 「火災, 傳媒與上海城市共同體建構——以11.15火災爲例」, 『新聞大學』, 2014年 第1期. 저자가 상하이 지역 미디어의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 참고.

만한 사고 처리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반감을 느낀 상하이 시민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생생한 사건의 현장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규정 미달의 내열재를 사용한 아파트 부실시공과 부패, 소방시설의 미비에 관한 내용을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인가(我們是誰)’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형성되었다. ‘도시(城市)’와 ‘상하이(上海)’라는 말을 중심으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sup>26)</sup> 개인 미디어의 내용들이 전국적 반향을 일으켰고, 베이징 광저우 등지의 시민들도 빈소를 만들어 화재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다.

거리에 운집해 애도의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슬픔을 넘어 ‘상하이시민’으로서의 정서적 유대가 확산되었다. 화재로 희생된 주민의 죽음과 유기족의 이쁨에 동참했으며, 생명존중과 거주 환경 안전보장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형성했다. 사람들이 운집한 애도의 광장은 슬픔의 상하이로 온정의 상하이로, 그리고 공동체의 상하이로 바꾸어 놓았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주민으로서 상하이 시민으로서 생명존중의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건축공정 부실과 비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이는 상하이 정부에 대한 시위로 이어졌다. 시위는 엄숙하고 질서정연했다. 유례없는 상하이 시민들의 애도

26) ‘관계’를 받고 있던 주류 신문사를 제외하고 지방 신문사와 소규모의 미디어는 상대적으로 네티즌과 상하이 시민의 반응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 중 『新聞晨報』에서는 이러한 연대에 대해 “그 누구도 외부인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친구이며 수족과 같은 지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했으며, 『i時代報』는 “2010년 11월 15일(화재 참사일)은 상하이 시민들 모두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로 표현하며, “본보는 상하이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써 시민을 대표하여 보도에 임할 것과, 우리들(희생자와 시민)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화재를 통해 형성된 ‘상하이인’의 정서적 유대를 드러냈다. 張昱辰, 「火災,傳媒與上海城市共同體建構——以11.15火災爲例」, 『新聞大學』, 2014年 第1期. 재인용.

이 밖에, 11.15 사건 이후 7일째 되는 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들고 나와 애도를 표했’으며, 이를 ‘上海花祭’ 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려면 다음 기사 등을 참고.

「上海“頭七”花祭現場特寫：公民力量優雅表達」, 「上海大火引發對高層安全關注 消防安全不容忽視」. “11·15上海靜安區高層住宅大火”로 바이두 백과 검색(검색일 2015년 1월 30일)

<http://news.sohu.com/20101122/n277810498.shtml>, <http://news.sohu.com/20101121/n277795230.shtml>,

[baike.baidu.com](http://baike.baidu.com).

행렬과 침묵시위에 상하이 시정부는 이례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절차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두 번에 걸쳐 사과 성명을 냈다.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거친 민간 회사를 선정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설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맡길 것과 절차에 맞게 주민에게 손해배상 처리를 약속했다.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형성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은 사회구성원 간의 이념적 동일시가 이루어지며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때 이루어진다. 참여적 군중으로 이루어지는 ‘광장화’는 “가상과 실제의 경계를 자유롭게 횡단하며 문화 중심적으로 행동한다.”<sup>27)</sup>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형성하고 변형하는 유목적 주체들이 있는 곳에 광장이 있다. 자본에 의해 전유된 광장은 이렇게 일상의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 공간적 실천 등으로 새로운 의미체계를 형성하며 시민의 광장으로 다시 재전유된다.

## 5. 나가며

이 글의 대상은 상하이라는 도시공간과 스펙터클 그리고 그 ‘삶의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공간적 실천이다. 상하이의 지난 30여년에 걸친 도시 계획과 자본, 다양한 감각이 만들어내는 스펙터클은 상품에 대한 욕망(전시와 구경/동 의와 욕망)을 매개로 하여 인간을 자본주의적 주체 즉 소비의 주체로 재구성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상하이 10대 도시 상업지구 건설계획(上海十大商業區規劃)’의 영향으로 쇼핑몰은 규모와 수에 있어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고, 그 결과 상하이는 거주-소비형 도시로 거듭났으며 쇼핑몰은 상하이를 대표하는 도시 경관 중 하나가 되었다. 쇼핑몰은 소비와 유행, 생활과 문화, 오락과 여가를 선도하는 당대 상하이 사람들의 자본주의적 주체화의 핵심장치이다.

백화점(쇼핑몰)을 지칭하는 말로 ‘광장’이란 말이 1990년대 출현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 과정에서 광장이 가진 본래의

27) 김성일, 『대중의 계보학』, 서울: 이매진, 2014. 233쪽.

공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이 상업광장이 은닉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상하이인을 둘러싼 일상의 공간으로써 외부적 환경인 동시에 내적 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국가와 자본에 의해 길들여진 개인화의 유형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의 관리체계 안에 포섭되지 않는 개인들의 다양한 공간적 실천이 일상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장은 이미 자본에 의해 사적공간으로 전환되었지만, 광장무를 통해 드러나는 웃음과 무해함은 저들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외부적 조건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며 개인을 집단의 일원으로 다시 소환한다. 광장과 광장무에는 통제와 일탈이 공존하며, 상하이 사람들의 '삶능력'을 통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광장무를 통해 자본에 의해 사유화된 광장을 모두의 유희의 광장으로 탈환했다면, 화재 참사로 인한 추모객들의 시위대 전환(이른바 花際事件)은 개인화된 주체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환한 감성구조의 전환이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처음으로 '상하이인'으로서의 공통적 정서적 유대를 체험했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광장이 부활했다. 이런 일상생활의 전술은 권력과 자본이 구성해 놓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전술의 목표는 권력의 장치들을 단순히 무력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양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장악했던 공간들을 다시 '공공의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에 있다.

#### 〈參考文獻〉

- 기 드보르, 유재홍 옮김, 『스펙타클의 사회』, 서울, 울력, 2014.  
 돈 미첼, 류제현 외 옮김, 『문화정치 문화전쟁-비판적 문화지리학』, 파주, 살림출판사, 2011년.  
 앙리 르페브르, 양열란 옮김,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2011년.  
 에릭 홉스봄, 정도영 옮김 『자본의 시대』, 파주, 한길사, 2008년.

- 왕샤오밍, 김명희 외 번역, 『가까이 살피고 멀리 바라보기』, 서울, 문화과학사, 2014년.
-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 『박람회: 근대의 시선』, 서울: 논형, 2004년.
- 질 들뢰즈 외, 조정환 외 옮김, 『비물질노동과 다중』, 서울, 갈무리, 2005년.
- 질 뵈런타인, 박경환 옮김,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4년.
- 자끄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2008년.
- 조르조 아감벤, 김상운 외 옮김, 『목적없는 수단-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서울, 난장, 2009년.
- 김성도, 『도시 인간학: 도시 공간의 통합 기호학적 연구』, 파주, 안그래픽스, 2014.
- 김성일, 『대중의 계보학』, 서울: 이매진, 2014.
- 김인호, 『백화점의 문화사-근대의 탄생과 욕망의 시공간』, 파주, 살림총서, 2008년.
- 이득재, 『바흐젠 읽기』, 서울, 문화과학사, 2003년.
-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Simon During(ed.), *The Cultural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Second edition. 1999.
- 이응철, 「기억, 망각, 정체성과 장소성: 중국 상하이(上海)의 화이하이루(淮海路)의 문화적 의미」, 『아태연구』 제19권 제2호, 2012년.
- 홍준형, 「백화점의 탄생과 근대 상하이의 소비문화 -192,30년대 상하이의 화교 자본 백화점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51집, 2010년.
- 張昱辰, 「火災, 傳媒與上海城市共同體建構——以11.15火災爲例」, 『新聞大學』, 復旦大學, 第1期, 2014年.
- 周麗雲 邱慧晶, 「我國廣場舞的發展歷史淺析」, 『福建體育科技』第34卷 第1期, 2015年.
- 孔佳, 「影向廣場舞推廣的因素分析」, 『社會體育學』第5卷 第2期, 2015年.
- 甘曉君 唐新建, 「廣場舞傳播類型與組織特征探討」, 『社會體育學』第5卷 第6期, 2015年.
- www.shtong.gov.cn
- <http://news.sohu.com/20101122/n277810498.shtml>.
- <http://news.sohu.com/20101121/n277795230.shtml>.
- baike.baidu.com.

## 〈부록〉

\*다음 표는 현존하는 상호로 영업 중에 있는 백화점 및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였다. 1936년 이전 상하이의 초기 백화점들처럼 상호가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었거나 폐점한 백화점의 이름은 다음 표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상하이의 근대적 백화점에 관한 내용은 본문 주석 7을 참고.)

〈표1〉

백화점 이름	소재지	개점연도
第一百货商店	黄浦区	1936
上海六百	徐汇区	1952
太平洋百货	黄浦区	1987
百盛购物中心	卢湾区	1994
新世界城	黄浦区	1995
亚新生活广场	普陀区	1996
徐家汇东方商厦	徐汇区	1997
美罗城	徐汇区	1997
东方商厦	徐汇区	1997
置地广场	黄浦区	1997
仲盛世界商城	闵行区	1998
上海广场	卢湾区	1998
汇金百货	徐汇区	1998
上海世贸商城	长宁区	1999
中信泰富广场	静安区	2000
恒隆广场	静安区	2001
仙乐斯广场	黄浦区	2003
久光百货	静安区	2004
龙之梦广场	长宁区	2005

百联中环购物广场	普陀区	2006
宏伊国际广场	黄浦区	2006
万达广场	杨浦区	2006
大宁国际商业广场	闸北区	2006
IMAGO我格广场	普陀区	2008
梅龙镇伊势丹百货	静安区	2008
金桥国际商业广场	浦东新区	2009
大悦城	闸北区	2010
日月光中心	黄浦区	2010
中房金谊广场	浦东新区	2010
芮欧广场	静安区	2012
绿色米兰广场	杨浦区	2012
中原城市广场	杨浦区	2012
百联徐汇购物商业广场	徐汇区	2012
K11购物艺术中心	卢湾区	2013
正大乐城	徐汇区	2013
宝龙城市广场	浦东新区	2014

〈ABSTRACT〉

A Study on spatial practice of Shanghai  
 - Centering around the Plaza in urban area

This paper is about the city space and spectacle of Shanghai, along with the spatial practice happening inside its "Circle of Life". Shanghai's spectacle, which is composed of urban planning, capital and various senses spanning three decades, reconstituted humans as subjects of capitalism, that is, subjects of consumption, using the commercial desire as an instrument. Department stores are a key apparatus of Prominent Shanghai

People's Capitalistic subjectivation that pioneers consumption and trend, life and culture, along with entertainment and leisure.

The term Guangchang (Plaza), which refers to a department store, first made its appearance in the 1990s and became overwhelmingly abundant after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During this process, the original meaning of Guangchang(Plaza) as a public space has diminished. Due to capitalism, the 'Plaza' became private space but the people of Shanghai has appropriated the private 'plaza', designated by politics and capital, to a square of the citizen.

If a square privatized by capital was reclaimed to an amusement square for everyone, through the case of Guangchangwu, the transition from mourners for the Apartment Fire of 11.15 to demonstrators caused the sense of individual ownership to change into "community ownership". For the first time, the people living in Shanghai experienced the common emotional bond as "Shanghai People",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true meaning of the Square was resurrected. This strategy of everyday life is constantly realized in the "Circle of Life", originally formed from the authorities and capital, and it is beginning to generate new meaning. The objective of the Tactics of Everyday Life is not aimed at the mere neutralization of the authorities. Through endless trial and effort, it's purpose is to restore the area once dominated by capital and power into the property of the public.

Key Words: Shanghai, spectacle, space, plaza, spatial practice, everyday life

이 논문은 2015년 4월 14일에 접수되어 2015년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5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